

# 石油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 정치적 商品에서 일반상품으로 -

70년대의 石油에 대한 경제의 기초적 조건은 石油의 量的 多寡와 수급등 이른바 하드웨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美國경제와 그 정책의 변화, 石油의 정치이탈, 석유의 금융상품화와 石油의 주변관련정보등 이른바 소프트웨어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산업도 情報化·지식 집약화가 요구되고 있다.

## 새로운 차원의 석유

OPEC(石油輸出國機構)가 거듭 회의를 열거나, 이란·이라크 전쟁, 레바논 분쟁이 격화되어도 석유가격은 좀처럼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적 불안이 달러貨 약세를 가져와 80년대 후반의 석유정세는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石油를 움직이는 경제적 기초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다.

70년대의 인플레이 시대에 비해, 디스인플레이 내지 디플레 시대인 현재는 石油 수급에 있어서 乖離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石油의 경제적 기초조건이 석유량의 다과와 수급이라는 이른바 실질적인 면에서 주변 관련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 지식과 같은 이론적인 면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 80년대 후반의 특징이다.

작년, 새로운 차원의 石油를 시사하는 사건이 몇가지 일어났다. ① 선진 5개국 財務相회의(G 5), ②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장을 빼놓은 국제연합 40

주년 기념식 ③ 여섯가지 국제 상품협정의 파탄 등 세가지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美國 경제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다. 금융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대신에 일명「베카이즘」이라고 하는 공적 개입을 강화한 것이다. 두번째는 아랍제국이 분열되었다는 것과 石油의 정치색이 희박해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石油의 일반상품화, 금융상품화 경향이다.

작년에 베이커 美 재무장관이 탄생했을 때, 英國의 화이넨설 타임스 紙는 「자유방임주의여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수정을 예언하였다. 뉴욕에서의 G 5 합의는 협조를 구한 공적 개입의 발로이다. 그 이후에도 美國 부시 부통령의 석유가격 유지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 OECD의 日本에 대한 권고, 美日 수뇌회담에서 멕시코에 대한 응자 약속등, 사사 건건 개입해 왔다.

베카이즘의 등장은 美國경제가 美國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관에 직면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레이건 믹스(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의한 경기회복의 후유증이 많이 나타났다. 「쌍방의 적자」, 실질고금리와 달러(\$)화 강세, 농산물등 자원가격의 저조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개발도상국의 채무문제 등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다.

美國은 이러한 후유증을 FRB(美國연방준비이사회)에 의한 금융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게 되어 미국 스스로 정책을 수정」하여 동맹국의 힘을 빌린 공적 개입을 강조하였다.

**美國의 정책전환과 석유감산**

이것은 앞으로 石油가격 회복에도 베이커이즘이 발동될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原油 감산에는 자금의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OPEC은 이미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락하였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외자금의 인출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유일한 담보물인 原油가 줄어들고 있어 감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G 5 또는 IEA(국제에너지기구)등 선진국측이 국제금융 시스템의 혼란방지, 멕시코 구제등의 명목으로 우선 美國, 英國, 캐나다, 노르웨이등 선진공업 산유국에서 감산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OPEC의 불신감을 제거하고, 그밖의 非 OPEC산유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생산할당을 하지 않으면 가격회복의 실효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차 석유위기는 아랍제국이 아랍의 大義, 즉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들어 이스라엘에 대해 결속 대항한 4차 中東戰爭이 단서가 되었다. 그러나, 그후 아랍은 서쪽의 이스라엘, 동쪽의 이란이라는 「3가지 도전」에 의해 통일과 결속확대를 저해당하고 있다. 이란 혁명에 의한 모슬렘 원리주의의 高揚은 보수적인 산유국을 지역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石油수입의 감소와 실업증대로 산유국은 팔레스타인 원조나 외국인 노동자를 싫어하게 되었다.

작년 2월, 후세인 요르단국왕과 아라파트의장의 中東평화 이니셔티브도, 그후 팔레스타인에 의한 연속테러행위와 과격파와 손을 끊지 않는 PLO의 비현실적인 태도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美國의 가교 역할을 해온 英國의 지지도 잃어 버렸다. 결국은 아랍내부에서도 PLO와 인연을 끊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결과가 되었다.



최근 국제석유시장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기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석유에 대한 인식도 종래의 정치적 상품에서 일반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사진은 로테르담 석유현물시장의 석유저장시설들.

과거 아랍통일의 기치를 내세운 PLO는 아랍 5개국으로 분산되었으며, 그 결과 石油의 정치색은 거의 퇴색해 버렸다. 이란과 리비아의 요청으로 石油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더욱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아랍산유국은 역사의 교훈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原油는 오랫동안 특수상품으로 간주되어 왔다. OPEC가 결정된 지난 60년부터 '83년까지 석유제품가격이 내려도 원유가격은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상승하였으며, '75년부터 '83년까지 原油는 다른 1차 상품가격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강세를 보여왔다.

**시장정보에 민감해진 石油**

과거 선진국수뇌회의에서 「석유 가격의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결의한 적이 있다. 메이저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 조차 석유 가격의 형성과정에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뜻을 받아들여 EC(유럽공동체)가 로테르담 석유시장을 정밀 조사하였으나, 전혀 그 내막을 파악하지 못했다.

많은 석유관계자들은 오랫동안 原油거래는 OPEC카드

텔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기초로 석유회사와 산유국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왔다. 原油는 일반상품과는 구별해야 할 특수상품이었기 때문에 사탕중매업자가 중심이 되어 런던이나 뉴욕에서 原油와 석유제품의 선물시장을 창설했을 때에도 석유인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러나, 석유가격의 변동이 커지면「헷지(hedge)」(가격변동에 대한 보험거래)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초창기 뉴욕 상품거래소(NYMEX)에서의 선물거래량은 美國의 대표유종인 WTI의 경우 44만B/D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하루평균 2천만배럴, 많을 때는 6천만배럴까지 거래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先物去來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石油의 개념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① 스크린에 비쳐지는 가격을 보면서 불특정다수가 참가할 수 있는 시장의 출현으로 가격의 투명성이 일시에 실현되었다. ② 거래액이 적은 명목상의 指標原油 아라비안 라이트 대신에 WTI가 새로운 지표원유가 되었다. ③ 고금리 시대에 선물시장이 자금조달, 재금융의 기능을 대체시켰다. ④ 石油과 다른 상품과의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졌다. ⑤ 석유거래가 채권화되어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현물 受渡를 전제로 하지 않은 先物이나 옵션 시장의 발달은 석유거래를 보다 情報化 한다. 석유가격의 등락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며, 그것이 곧 바로 금리에 되미치어 장단기 금리상품, 외환이나 주식시장을 크게 움직인다.

이들 시장은 先物이나 옵션이 되면 수 10배의 규모로 커지기 때문에 석유가격이 초래하는 국제자본 이동이나 투자수익 기회에 대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그 수익기회는 石油을 현물로 주고 받는 거래를 단념하는 자가 향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작년에 石油에 앞서서 우선 천연고무, 코코아등의 국제상품 협정이 파탄되었으나, 이것은 가격지지를 위한 두 가지 방책 - 생산조정과 정책적인 비축재고 - 이 자금부담의 압력에 견디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OPEC카르텔은 주식이나 고무와는 달리, 생산자만이 강력한 힘을 지닌 카르텔이지만, 그래도 카르텔이 붕괴된 것은 달러貨 약세에 의한 수입물가상승, 금리수입감소·산유수입금 감소와 금융면에서의 큰 부담을 견디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OPEC는 '82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락하여 금년에는 7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82-85년의 누적적자 370억달러의 약 80%를 유로 예금과 美國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메꾸었다.

한편, 美國도 '81-85년에 2천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상당부분을 美國은행의 대외대출 감소와 대출금 회수로 충당해 왔다. 유로시장에서는 '73-81년까지 美國과 OPEC가 자금을 공급하고 주로 非産油 개발 도상국이 여기서 자금을 차입해 왔다. 앞으로는 美國, OPEC, 비산유개발도 상국이라는 3대 경상수지 적자권이 달러 자금의 쟁탈전을 전개하는「마이너스 섬 게임」이 격렬해 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 결과 유러 인터뱅크(은행간)시장의 마비, 국제금융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미래 예측이 발전의 열쇠

『석유산업만큼 미래 요소에 입각하고 있는 산업은 없을 것이다』고, 美國 MIT의 에델만 교수는 말한적이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세계기업 랭킹에서 셀사가 엑손을 제치고 세계 제2위, BP가 엑손에 이어 세계 제4위로 부상한 사실을 보아도 장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얼마나 기업의 성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걸프사가 메이저에서 자취를 감춘 사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석유위기 당시에 메이저내에서는 미래예측의 수법으로 2대조류가 있었다. 주로 美國系 기업이 채용한 補外法과 영국계 기업에 의한 시나리오법이다. 과거의 숫자에 구애 받지 않는 시나리오 방식에서는 수요감소나 가격하락도 염어서 비교적 신속하게 사업다각화의 철퇴나 조업단축화를 단행하였다.

3년전부터 석유업계를 엄습하고 있는 기업 파동 속에서, 美國系 대부분 회사는 차입금에 의한 자사주식 매입을 서둘러 자기자본 부채비율을 악화시켰다. 이에 대해 BP는 자사주식 매입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중간계층에 대한 권한 위임과 자회사의 자주성 존중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은행을 설립하여 재무시대에 대비하는 손길도 빨랐다. 이러한 BP의 약진의 역사는 지식집약화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최근의 석유정세 전개는 정보화·지식집약화중에 새로운 정책과제나 수익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일본 경제신문 5/14)